

■ 특특뉴스

직장 동료 결혼 축의금 10만원 적당

직장인들은 동료 결혼식 축의금 액수로 1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는 지난 20~22일 직장인 844명을 대상으로 올해 기준 직장 동료의 적정 결혼 축의금은 얼마인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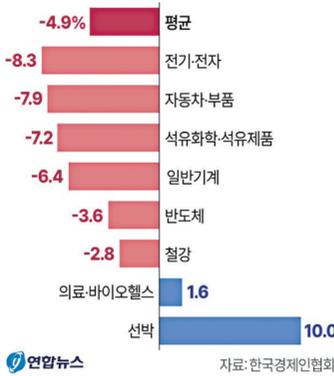
1인 기준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까지 하는 경우 적정 축의금으로 가장 많은 61.8%가 10만원을 택했다. 이어 5만원 32.8%, 5만원 미만 3.2%, 15만원 1.4% 순이었다.

사적으로 친한 동료(59.7%), 협업하거나 일로 엮인 동료(60.1%) 등 동료와의 관계에 상관없이 1위는 10만원이었다. 2023년 같은 조사에서는 협업할 때만 마주치는 직장 동료의 적정 축의금으로 5만원(65.1%)이 대세였으나 물가 상승과 함께 액수가 올랐다.

■ 그래픽 경제

미국 관세 정책 지속시 업종별 수출액 증감률 전망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천대 기업 중 수출기업 대상 조사, 응답기업 150개사



미 관세로 수출 4.9% 감소 전망

국내 수출기업들이 올해 미국 관세로 인한 실적 악화를 우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수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50개 사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속하면 올해 수출액이 작년보다 4.9%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상원 회장, 대한상의 ‘대외협력위원회’ 참여

국회-경제계, 입법파트너십 가동 관심법안 공동대응·정책 제언 등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출범시킨 ‘대외협력위원회’에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한다.

한 회장은 국회와 지역경제계 간 소통을 제도화하고, 지역 현안을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선다.

26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대외협력위원회는 전국 74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구성되며,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제주권 등 7개 권역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호남·제주권을 대표하는 초대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함께 위촉

된 공동위원장으로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전상의 회장이 참여한다.

대외협력위원회는 경제계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해 단편적인 견지에서 벗어나, 입법 초기 단계부터 기업의 현실과 지역의 요구를 국회에 구조적으로 전달하고, 공동의 정책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경제계 대표 협의체다.

대한상의는 “입법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계가 보다 책임 있는 입법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지역 기업의 의견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권역별 균형적 운영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향후 △경제계 주요 법안에 대한 제언 및 공동 대응 전략 수립 △국회 주요 상임위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초청 간담회 △지역구-지역상의 간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국회와 정례적 소통을 추진하고, 지역혁신 모델로서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광주가 미래차, AI, 에너지 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입법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대외협력위원회를 통해 광주를 비롯한 지역 기업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경제계가 실질적인 입법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외협력위원회 첫 공식 회의는 오는 7월 ‘대한상의의 광주포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종 규제 법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담은 경제계 제안집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연수 기자

한전, 공기업 최초 ‘업무용 공유차량’ 도입

모빌리티플랫폼 쏘카와 업무협약

한국전력이 공기업 최초로 ‘업무용 공유차량 서비스’를 도입해 차량 운영비용 절감에 나선다.

한전은 최근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와 ‘업무용 공유차량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업무용 공유차량 서비스는 한전이 보유한 차량 대신 공유차량을 업무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한전은 쏘카에 공유차량의 주차장 부지를 제공한다. 쏘카는 한전에 업무용 공유차량 사용 요금의 60%를 할인해 주고 주차장 이용료를 부담할 예정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소재 15개 사업소 구내 주차장에 ‘쏘카존’을 설치, 공유차량을 업무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전국 52개 사업소로 순차 확대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한전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보유했던 차량구매비와 유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향후 10년간 차량구입비 77억 원, 차량운영비 11억 원 등 88억 원의 비



한국전력이 최근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와 ‘업무용 공유차량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 제공

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중이다.

한전은 사업소 주차장 내 쏘카존을 설치해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편리한 공유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등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쏘카는 매출을 늘려 양사의 상호이익이 증대 효과도 예상된다.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전이 전반적인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작은 수익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업무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무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기술사업화 촉진사업 추진 광주특구본부, 참여기관·기업 모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광주특구)는 내달 23일까지 ‘2025년 광주특구 기술사업화 촉진사업’ 참여 기관·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디딤터 현장적용 강화와 수요 중심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한 기업의 신시장 진출이 목적이다.

사업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디딤터 전환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디딤터 창출 지원 사업’과 디딤터 기반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발굴 사업’ 등이다.

기업 현황진단과 애로해결을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애로 해결 지원’ 및 첨단기술·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첨단기술기업·유망기업 발굴·지원 사업’ 이도 마련됐다. 사업 공고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와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동경 광주특구 본부장은 “디딤터 기반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역량진단, 수요 발굴, 맞춤 지원 프로세스를 체계화해 지역의 성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일자리 중심 민생경제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도시 광주 복구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 *신중년 일자리창출 지원
- *일자리 매칭데이 운영
- *복구취업정보센터 운영
-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지원

내 일(JOB)로 내일(TOMORROW)을 도약하는 행복 복구